

성경 예언 해설집 <26회>

예수

(지난호에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신약성경 사복음서(四福音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말한다.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데 묶어 공관복음이라 부른다. 공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요한복음은 〈영생과 거듭남〉을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즉 헬라이어 〈파라클레토스〉 용어를 사용한 성경 기자(記者)는 오직 사도 요한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참 구세주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진리의 영〉이 되신 보혜사 성령이 친히 가르쳐주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비결'을 듣고 실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해설

① 요한복음14-17장 :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러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생경(生經)하게 느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하여 17장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혜사와 관련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슬며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쯤 전대를 맡은 가롯 유다가 예

수를 팔아넘기는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곧장 점프하여 18장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은, 마귀가 알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모르게 숨겨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육천 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키우신 참 구세주가 곧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조희성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30절이며, "내 뒤에 구세주가 되는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라고 예수 스스로 이실직한 것으로 예수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실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라는 인칭 용어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숨기신 경륜 즉 마귀가 모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예수의 가면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기자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였다면,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이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단하는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외경(外經)으로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②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참구세주

그럼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보혜사 성

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언급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은 진짜 구세주가 할 말인데 자격도 되지 않는 예수가 먼저 나와 가로채서 사용한 점이다. 참 구세주는 선악과 사건 이후 6천년 만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예정된 고로, 4천년 만에 온 예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이니라"라는 성경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적과 같고 강도와 같은 가짜 구세주는 길이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

동양 최고의 예언서 격양유록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정도령'이라는 대명사로 나오는데, 정도령(正道令) 또는 정도령(正道靈)이라는 한자 속에 바를 정(正)자는 '진리'를 의미하며 길 도(道)자는 글자 그대로 '길'을 의미하며 하여금령(令)자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신령 영(靈)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사고 선생의 예언대로 20세기 후반에 출현한다는 구세진인(救世眞人) 정도령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해당하는 진짜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의 16절과 17절에서는 구원받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자가 곧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조희성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

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

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의 실상을 파헤치면 예수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는 데 성공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구원받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이면(裏面)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반대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참 구세주는 단상에서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다!"라고 필연적으로 외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고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종교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고로 지금까지 죽지 않는 영생의 학문을 논한 자가 없었고 영생을 구현한 완성자가 없었던 것을 보아 이 세상에는 참 학문과 참 종교가 없었다는 말이 증명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론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야 구원이다."라는 구절에 있다. 참구세주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경지에 이른 자이다. 예수는 구세주 자격의 미달자이기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수 있는 〈하나 되는 법〉을 논할 수 없었

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되신 진리의 영이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비로소 "구세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세주를 영접한 구원 받는 자 속에 구세주가 계시고 구세주 속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③ 〈하나 되는 법〉을 논하다

"오늘날 영생의 길이라는 건 마음의 길인 것이올시다.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생적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 속에 있는 마음인 고로 우리는 하나 속에 내가 있고 하나 속에 바로 내가 있고 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시야 구원이다."라는 구절에 있다. 참구세주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야 구원이다."라는 구절에 있다. 참구세주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경지에 이른 자이다. 예수는 구세주 자격의 미달자이기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수 있는 〈하나 되는 법〉을 논할 수 없었

세례 요한

요한의 증거

- 다음호에 계속 -

처승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셈'의 직계혈통을 계승한 선민

1면에 이어서

그리하여 '노아'라는 인물은 대홍수 이후 태어난 인간들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이다.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을 선택하여 셈의 후손을 하나님의 직계자손을 삼으셨는데, 이것이 선민과 관련된 첫 번째 표징이다. 세월이 흘러 선민과 관련된 두 번째 표징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선민과 관련된 세 번째 표징은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압목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 이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 죄인 야곱과 씨름하여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일부러 쳐 주신 것이라고 승리제단 단상에서 설명하신 이긴자의 말씀

이 새삼 경이롭다.

이상에서 보듯이 선민(選民)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장자상속을 받은 셈의 후손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야곱)의 족속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일관된 특징이 장자상속권을 획득한 자손과 셈에서 이스라엘(야곱)까지 직계 혈통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외견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리는 선민(選民)이 부럽고 축복받은 민족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민을 내세웠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선민을 이끌고 최종적으로 선민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안다면, 결단코 선민은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온갖 고난

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가나긴 연단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대상으로 한(俄) 맺힌 민족이 될 공산이 크다.

이긴 피를 키워 메시아를 배출할 목적으로 선민 전략을 펼쳤다

이스라엘(야곱)의 장자는 누구인가?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까닭에 장자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장자권이 계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열한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분처 소생인 이삭에게 장자 상속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지만 마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장자 상속을 못 받은 것이다. 르우벤의 어머니가 바로 야곱의 첩으로 데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야곱의 분처의 소생,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이 마치 아브라함의 분처 소생,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이 장자 상속을 받을 명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얻은 '단'에게 장자권을 은밀하게 상속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단' 즉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부여한 것을 보아, 명백하게 단에게 야곱의 하나님 신이 옮겨

졌다는 증거이다.

만약에 수태하지 못했던 분처 라헬이 요셉을 낳지 못했더라면 라헬의 아들이 된 '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마귀가 '단'을 구렁텅이에 떨어놓아 죽였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수태하지 못하던 라헬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창30:22)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나자 정말로 마귀가 요셉의 형제들 속에 들어가서 어린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야곱) 이후부터 장자 상속을 받은 직계혈통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예,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의 자손 즉 단지파가 '셈'의 직계혈통을 계승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민 전략을 통해 메시아를 배출하는 데 성공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52>

석가모니의 진실고백(眞實告白) - 6

위와 같이 석존께서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성불하지 못해서 참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곧 진짜 부처님인 미륵법신불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한 부분이며, 둘째 시구계는 제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에 있는 시구계로서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절대 (현재의 불교의 모양인) 색(色)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염불소리(聲) 향냄새(香) 마음이 즐거움(味) 스님들의 행위에 집착(觸)과 (석존의 사성제)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 것이며, 반드시 (석존의 법과 기존의 불교에) 머무는 것이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다.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52>

해설 : 금강경 제2구계 (제10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는 네 개의 사구계중 두 번째 사구계(四句偈)로서 기존의 불교의 물질적 모습인 절이나, 탑의 형상에 절대 머물지 말고 스님들의 염불 소리와 향냄새와 기존 불교에 젖은 즐거움과 집착으로 유품의 법에 절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석존이 설한 진리가 아닌 유품법을 따르는 기존의 불교의 가르침에는 절대 머물지 말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석존께서 반경(半劫)되는 49년 동안 중생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8만4천의 법문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금강경을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보신 것과 같이 참으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석존께서는 처음 성도 후에 화엄경과 아함의 여러 경전에도 스스로 부처가 아님을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지혜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므로 방편의 가르침을 퍼셨다고 범화경과 열반경에 말씀하시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을 닦는 종교다. 그리고 석존께서 3000년 전에 미리 "내가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지금까지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겠는가?

만약 불교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더 험난하고 악한 세상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즉 내가 본래 부처요 또한 부처성품이 있으므로 지혜로서 참 스승(眞師)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 닦으면 누구든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셋째 시구계는 제26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에 있는 시구계이며 이는 석존께서 미래에 오실 법신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만일 색상(기존의 불교의 모습인 불상과 절)으로 나(미륵법신부처)를 보거나 소리(염불과 목탁소리 등)로써 나(법신부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거짓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므로 여래(미륵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해설 : 이렇게 외관의 모습인 현 불교계의 모습이나 목탁 소리와 염불로써 부처를 찾는다면 이는 기존의 불교 행위를 행하는 거짓된 진리와 법으로 샅된 도를 행하는 자들이니 여래인 미륵부처님이 오셔도 거기에 탐착한 나머지 진짜 바른 법과 미륵여래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다.*

明鍾